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4

미국동맹의 군사력 대체 가능성 검증
Testing the Substitutability of U.S. Alliances and Arms

이진명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동맹사례를 통해 강대국 편승 안보정책과 그 대안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동맹과 군사력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일반이론 구축과정이다. 둘째, 구축된 이론을 미국 동맹사례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자는 분쟁 억제 측면에서 동맹과 군사력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과기제의 중요한 두 변수를 규명하였다. 군사력은 직접일반억지력에, 동맹은 정보기능을 통해 일반확장억지력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두 변수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을 구축했다: 가) 군사력과 동맹의 대체 가능성, 나) 동맹을 대체하기 위한 충분한 군사력 수준, 다) 동맹 하에서 분쟁을 억제할 군사력 수준.

이 연구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력은 분쟁 억제를 위한 안보 수단으로서 동맹을 대체할 수 있지만, 동맹은 군사력을 대체할 수 없다. 둘째, 동맹을 맺더라도 분쟁 억제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군비 증강은 필수적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국가 안보의 핵심 기제는 군사력이며, 동맹은 부차적이다. 둘째, 동맹은 협정 당사국들이 구속적 의무, 연루, 새로운 위협의 추가, 동맹국 간 분쟁 가능성을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한 안보 기제이다. 셋째, 따라서 높은 위협에 직면하지 않은 국가는 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동맹을 맺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군사력과 분쟁 가능성의 상관관계에서, 분쟁 가능성은 매우 낮은 지점에서 시작하여, 상대적 군사력이 증가할수록 분쟁 가능성은 증가한다. 국제체제의 모든 국가의 군사력 총량의 과반에 이르면, 분쟁 가능성은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고, 그 군사력 총량을 압도하게 되면 분쟁 가능성은 최소 지점에 도달한다. 동맹을 가진 국가의 경우, 분쟁 가능성은 높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지만, 동맹국의 군사력이 일시에 추가되기 때문에 상대적 군사력이 급격히 증가하며, 따라서 분쟁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맹과 군사력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이론을 미국동맹 사례에 적용한 통계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군사력은 동맹을 대체할 수 있지만, 동맹은 군사력을 대체할 수 없다.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은 국가도 그 국가의 적대국에 대한 상대적 군사력이 500배를 넘는 압도적 수준에 이르면 적대국에 의한 침공 가능성을 0에 근접하게 억제할 수 있다. 둘째,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 하더라도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상대적 군사력을 3배 이상 증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는 동맹 자체가 분쟁 억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동맹연루, 새로운 위협의 증가 등 군사적 약점을 수반한다. 셋째,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적대국에 대한 상대적 군사력을 3배 이상 증강하는 경우에만 분쟁 개입 가능성은 매우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이진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은 전쟁과 식민지 범죄 사례에서 초국경적 국가 책임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 분야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분쟁, 자유주의 평화론, 그리고 강대국 편승 안보정책과 그 대안의 검증이다. 2036년까지 최종 연구 목표는 한미동맹의 한국 군사력으로의 대체 가능성과 독립과 생존이 가능한 주권 국가로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통일한국의 독자적 안보 체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Date & Time: April 2, 2024.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